2021 QUARTERLY REPORT

VOL.2021-ICT-4호(2021.11)

ICT산업 2021년 3분기 동향

Ⅰ. 반도체
Ⅱ. 디스플레이
Ⅲ. 휴대폰

작성

선임연구원 이미혜 (6252-3608)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요 약 >

(반도체) 3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데이터센터·모바일용 수요 증가, 가격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성장

- (세계시장) 3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2.2% 증가한 266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한 189억 달러 기록
- (가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0%, 10.2% 상승
- (수출) 3분기 반도체 수출은 서버와 모바일용 수요 증가,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7% 증가한 351억 달러 기록

(디스플레이) 3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

- (세계시장) LCD 시장은 양호한 노트북·모니터 패널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 OLED 시장은 스마트폰·TV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성장
- (가격)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3분기 연속 하락
- (수출)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4% 증가한 67.4억 달러 기록

(휴대폰)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 전분기 대비 5.7% 증가한 3.3억대 기록

- (세계시장) 비메모리반도체 부품 공급부족이 자동차산업에서 IT기기 부품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생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시장점유율) 삼성전자는 1위를 수성, 애플은 샤오미를 제치고 세계 2위를 탈환
- (수출) 3분기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33.5억 달러 기록

Ⅰ. 반도체

(세계시장) 3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데이터센터·모바일용 수요 증가, 가격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성장

- 3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2.2% 증가한 266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한 189억 달러 기록

-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인텔과 AMD의 신규 서버용 CPU인 Ice Lake와 밀란(Milan) 출시 및 데이터센터의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
-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아이폰13 등), 탑재용량 확대 등으로 증가
  · 아이폰 프로 라인의 D램 탑재용량은 기존 6GB에서 8GB, 일반 라인은 기존 4GB에서 6GB로 증가, 아이폰의 저장용량(낸드플래시)은 기존 64~512GB에서 128GB~1TB로 증가
- PC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 비중이 높아지고, PC의 부품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둔화
  · 비메모리반도체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 제약, 차량용 반도체 우선 생산 등으로 공급 부족 지속, 2022년 하반기 공급부족 해소 예상
    * PC 출하량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분기)35.7% → (2분기)4.6% → (3분기)1.0%(가트너)

세계 D램 시장규모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



자료: Trendforce.

(가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0%, 10.2% 상승

- D램 가격은 1분기부터, 낸드플래시 가격은 2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 D램 가격은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2020년 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 1분기에 상승세로 전환,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7.9% 상승
  · 수요기업은 2021년 상반기에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져 메모리반도체 구매 확대
  · 3분기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데이터센터의 구매 확대 등으로 모바일 및 데이터센터용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견조했음
- 낸드플래시 가격은 수요증가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5.5% 상승

- 4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수요둔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3~8%, 0~5% 하락 전망

- PC 제조사 등 수요기업은 부품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IT기기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하기보다 재고 소진을 추진하여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 가격하락 예상
  · 세계 최대 시장이자 IT기기 생산기지인 중국의 미중갈등, 전력난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부품·완제품 생산 차질 가능성 등도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를 초래

D램 가격



낸드플래시 가격



주: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PC용),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메모리카드/USB용) 고정거래 가격 기준.
자료: Trendforce.

(기업) 3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이었던 2018년 3분기 실적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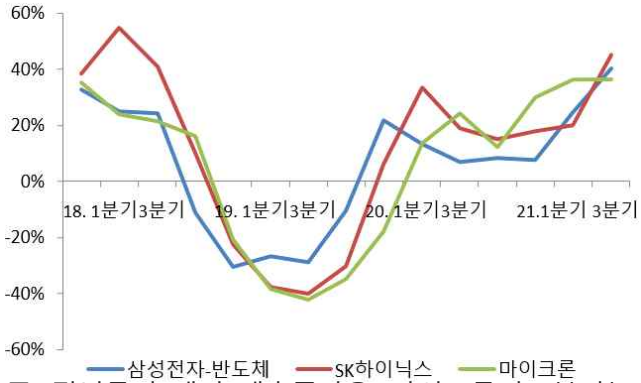
-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

-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한 26.4조원, 메모리반도체 매출(매출 비중 79%)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20.8조원을 기록
  ·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 서버 중심의 수요 강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전분기 대비 16% 성장
  ·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 신제품 출시로 인한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 파운드리의 글로벌 고객사향(向) 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 파운드리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
-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14% 증가한 11.8조원 기록
  · 2018년 3분기 이후 3년만인 2021년 2분기에 매출 10조원 이상 기록했으며 2분기 연속 분기 매출 10조원 이상 기록, 낸드플래시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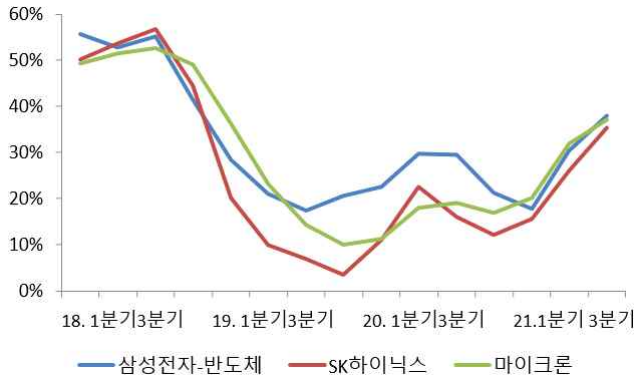
-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수율(양품 비율) 향상 등으로 35% 이상 기록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단가상승, 원가절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 영업이익률은 38% 기록
-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주력 제품 수율 개선 및 비중 확대, 낸드플래시 흑자전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0% 증가, 영업이익률은 35% 기록
  · D램 1z나노 수율 개선, 낸드플래시 주력 제품인 128단 비중 확대 등으로 원가절감 달성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마이크론의 1분기는 12~2월 기준.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수출) 3분기 반도체 수출은 서버와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7% 증가한 351억 달러 기록

- 메모리반도체 수출(반도체 수출중 비중 65%)은 전년동기 대비 40.2% 증가한 228억 달러,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한 123억 달러 기록

- 메모리반도체 수출[1]은 D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0.4% 증가한 111억 달러, 낸드플래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한 17.2억 달러를 기록
-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5G, IoT, AI와 관련된 가전·통신장비 수요 증가, 파운드리의 수주 확대* 등으로 증가

  * 퀄컴의 AP(Application Processor), 엔비디아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등을 수주

-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5%,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

  * 반도체 수출 국가별 비중('21.3분기): 중국 60%, 베트남 11%, 대만 8%, 미국 7%

- 대중국 수출은 2020년 3분기부터 회복되었으며,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반도체 수요 등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

  *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전년동기 대비): ('20.4분기)11.0% →('21.2분기)25.2% →(3분기)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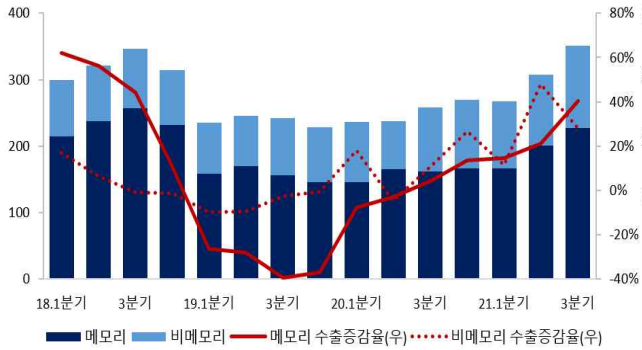
- 반도체 수출가격지수(2015=100)는 2020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17% 상승

  * 반도체 수출가격지수: ('20.3분기) 76 →(4분기) 68 →('21.1분기) 69 →(2분기) 79 →(3분기)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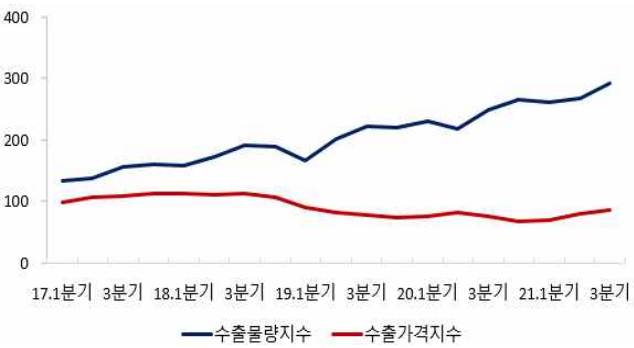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20.3분기)249 →(4분기)266 →('21.1분기)262 →(2분기)267 →(3분기)292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가격지수



주: 1)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광·개별소자(LED 등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를 포함.
2)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가격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1)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MCP(Multi Chip Package)으로 분류. MCP는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적층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며 메모리MCP는 스마트폰에 탑재됨

Ⅱ.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3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

- (LCD) LCD 시장은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노트북·모니터 패널 수요, 전년동기 대비 높은 가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

- TV 패널 출하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부터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른 일상으로의 복귀, 물류 이슈, TV 가격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3분기 LCD TV 패널 평균 가격(55인치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56% 높은 수준

- 노트북과 모니터는 직원 출근비율이 높아지자 기업용 수요 증가, 하이브리드 근무(출근+원격근무) 형태 확산으로 일반 소비자용 수요도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태블릿은 미국, 일본 등에서 원격교육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등교가 시작되면서 수요 둔화

- (OLED) OLED 시장은 스마트폰·TV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성장

-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OLED 패널 탑재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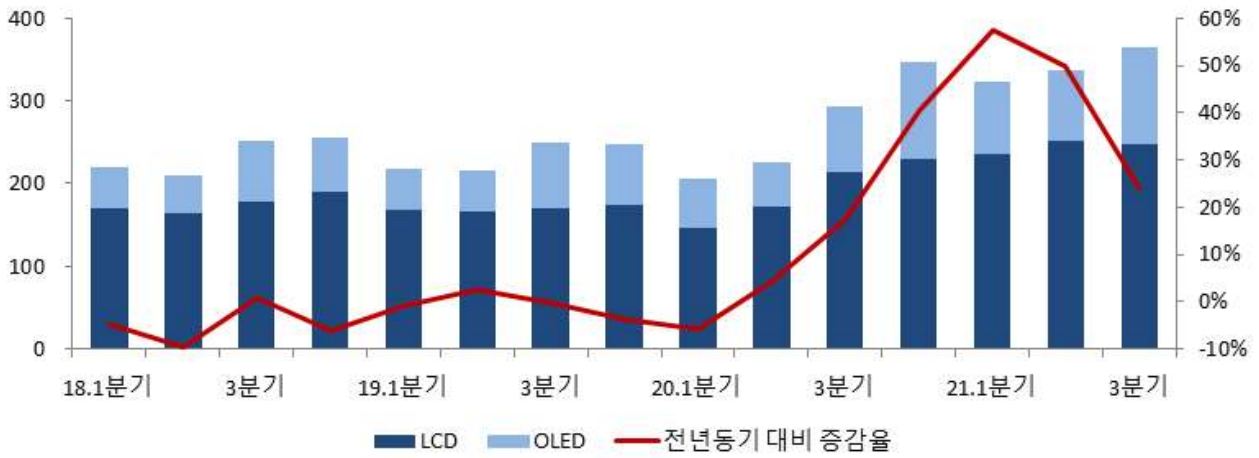
  · 아이폰13 출시 효과,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 호조 등이 스마트폰용 OLED의 성장을 견인

  * 애플은 아이폰12부터 전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

- TV용 OLED 시장(OLED 시장의 11%)은 대형 고화질 TV 선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성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옴디아.

(가격)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3분기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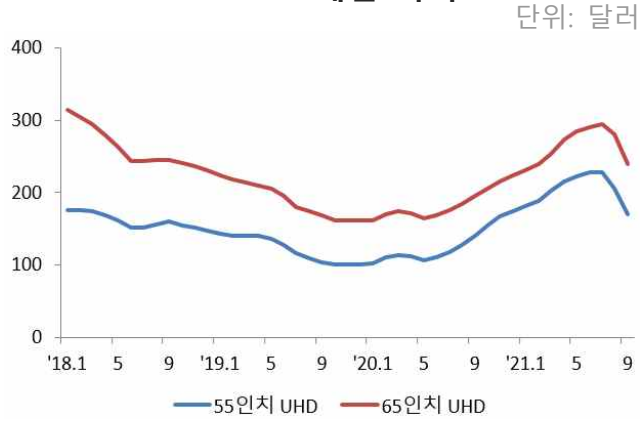
- (LCD) LCD TV 패널 가격은 2020년 6월부터 재택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TV 수요 증가,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13개월간 상승했으나 8월부터 수요 둔화로 하락 전환

- 한국 디스플레이기업이 중국의 공격적인 LCD 생산능력 확대 및 가격하락 등으로 2020년 말에 국내 LCD 사업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TV 제조사는 LCD 공급부족을 우려했음
  · 현재 한국기업은 고객사의 요청 등으로 LCD 구조조정 시기 재검토중
- 3분기 55인치 UHD(Ultra High Definition, 4K 해상도) TV 패널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56% 높은 수준을 형성
-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상승으로 일상 복귀가 가속화되면서 LCD TV 패널 가격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약 30%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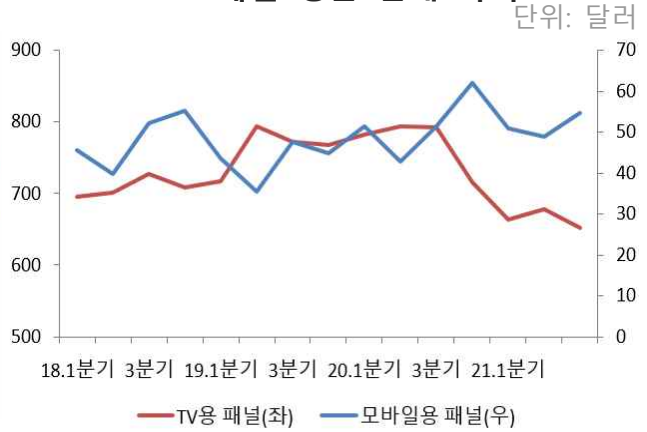
- (OLED)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7.7% 하락,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6.4% 상승

- OLED TV 패널은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으며, 동사의 중국 공장 생산량 증가*, 가격이 낮은 48인치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평균 판매 가격 하락
  * 상반기에 중국 광저우 팹에 30K를 증설
  · LG디스플레이의 중국 OLED 공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본격화했으며, OLED TV 패널은 55인치 이상 대형 패널 중심이었으나 코로나19로 48인치 게임용 및 세컨드 TV 수요 증가
-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은 고부가 패널을 사용하는 아이폰 신모델 출시, 폴더블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

LCD TV 패널 가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



자료: 옴디아.

(기업) 3분기에는 스마트폰용 OLED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디스플레이가 IT기기·TV 패널 매출 비중이 높은 LG디스플레이 대비 높은 매출증가율을 기록

- (삼성디스플레이) 3분기 매출은 주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등 고부가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8.9조원 기록

- OLED(매출비중 90% 중반) 매출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LCD 매출은 LCD 생산라인의 QD OLED로 전환* 등에 따라 매출 감소

  * QD OLED 라인은 2021년 4분기 양산 예상

  · LG디스플레이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WOLED(White OLED), 삼성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퀀텀닷(양자점) 컬러필터를 적용한 QD OLED 방식 사용

- 영업이익은 중소형 OLED 판매호조, 수익성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 개선 ('20.3분기 0.5조원→'21.3분기 1.5조원)

- (LG디스플레이)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한 7.2조원을 기록, 영업이익은 2020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실적 부진에서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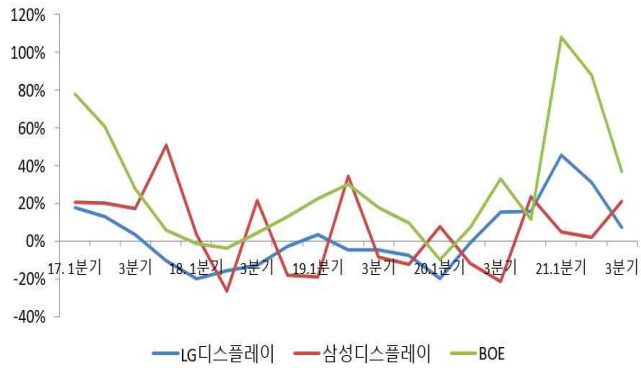
- 패널 출하면적은 TV 수요 약세,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한 IT용 패널 출하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 패널 선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 증가

- 면적당 판가는 LCD TV 패널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OLED 패널 출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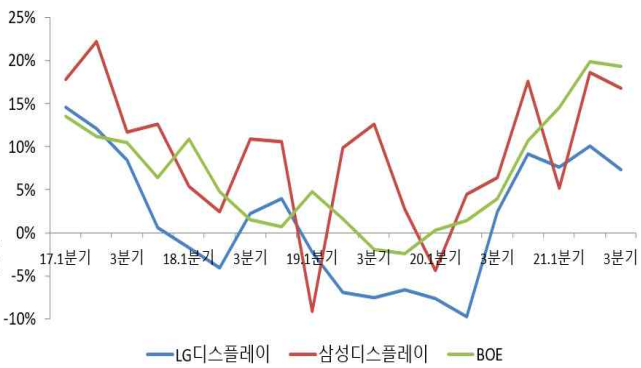
  * 3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 IT 패널 45%, TV 32%, 모바일·기타 등 23%

- 영업이익은 OLED TV 패널 손익 개선 등으로 5분기 연속 이익을 달성,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 전분기 대비 25% 감소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

(수출)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4% 증가한 67.4억 달러 기록

-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42.4억 달러,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한 14.9억 달러 기록

- OLED 수출은 2019년 3분기부터 LCD 수출을 추월했으며, 스마트폰 및 TV용 OLED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2020년 4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 지속
- LCD 수출은 패널 가격 하락,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과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각각 15%, 40% 증가

  * 국별 디스플레이 수출비중('21.3분기): 베트남 59%, 중국 35%

- 베트남은 OLED 최대 수출대상국(비중 78%)이며 한국기업의 스마트폰·TV 생산기지로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
- 대중국 OLED 수출은 45% 증가,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

-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가격지수(2015=100)는 89로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했으나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

-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는 LCD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39% 하락하면서 하락세 지속

  * 디스플레이 수출가격지수: ('20.3분기)73 →(4분기)79 →('21.1분기)83 →(2분기)88 →(3분기)89

  *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20.3분기)37 →(4분기)31 →('21.1분기)26 →(2분기)25 →(3분기)28

디스플레이 수출액

단위: 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가격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가격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Ⅲ. 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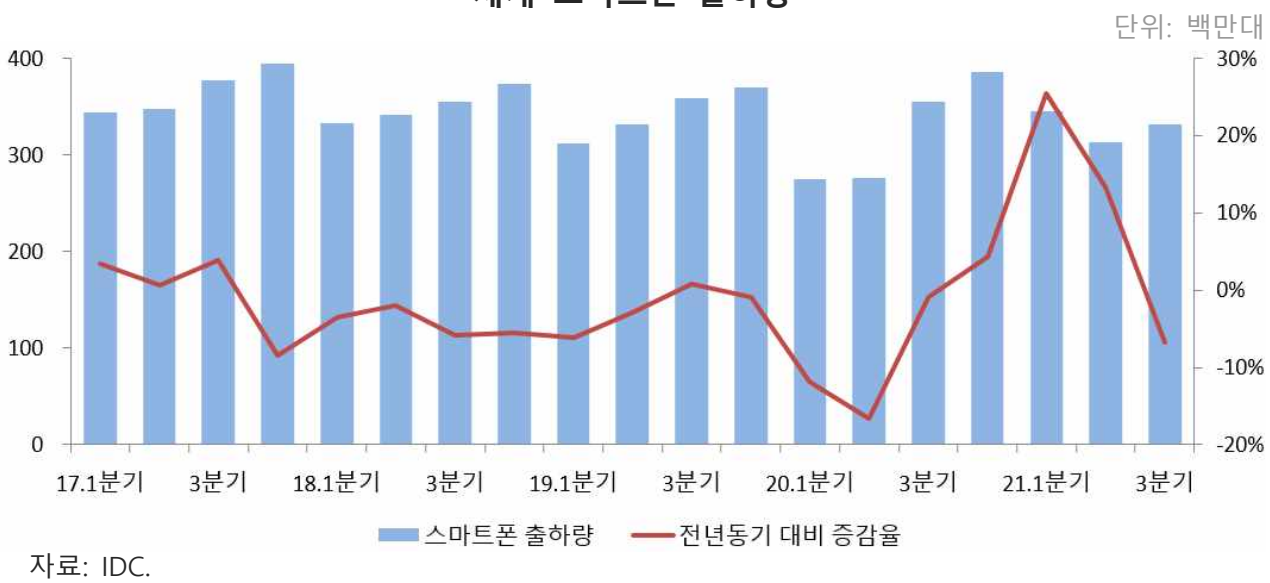
(세계시장)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 전분기 대비 5.7% 증가한 3.3억대 기록

- 3분기에는 비메모리반도체 부품 공급부족이 자동차산업에서 IT기기 부품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생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비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 물류 이슈, 중국의 전력난 등이 부품 생산 차질을 유발하면서 모든 스마트폰 기업이 영향을 받음
  ·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대비 공급이 양호했으나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AP(Application Processor),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전력관리반도체(PMIC) 등의 공급부족 발생
- 스마트폰 제조사가 고가폰 우선 생산을 추진하여 고가폰 판매 비중이 높은 국가가 중저가폰 판매 비중이 높은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
  · 미국, 서유럽,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2%, 4.6%, 4.4% 하락
  · 중부·동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중·일 外)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2%, 11.6% 감소
- 5G 스마트폰은 판매 증가로 중국 등에서 주류 스마트폰으로 성장

  * 중국내 5G 스마트폰 판매비중은 3분기에 79%로 확대 (카운터포인트)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IDC.

(시장점유율) 삼성전자는 1위를 수성, 애플은 샤오미를 제치고 세계 2위를 탈환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부품 공급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시장점유율은 20.8% 기록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8월에 출시한 폴더블폰(갤럭시폴드3, Z플립3) 판매호조, 중저가 라인업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품 부족 등으로 감소

  ·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2분기에 베트남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생산현장의 근로자 수 제한 등으로 스마트폰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며 3분기에도 공장 가동이 불안정했음

  *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가별 생산 비중: 베트남 60%, 인도 20%

-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모델 아이폰13 출시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8% 증가, 시장점유율은 15.2% 기록

- 아이폰13은 판매호조를 보였으나 공급망 관리 역량이 우수한 애플도 비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 등으로 연말까지 아이폰 생산목표를 계획보다 천만대 낮은 8천만대로 조정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 수요 약화, 부품 부족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하락, 시장점유율은 13.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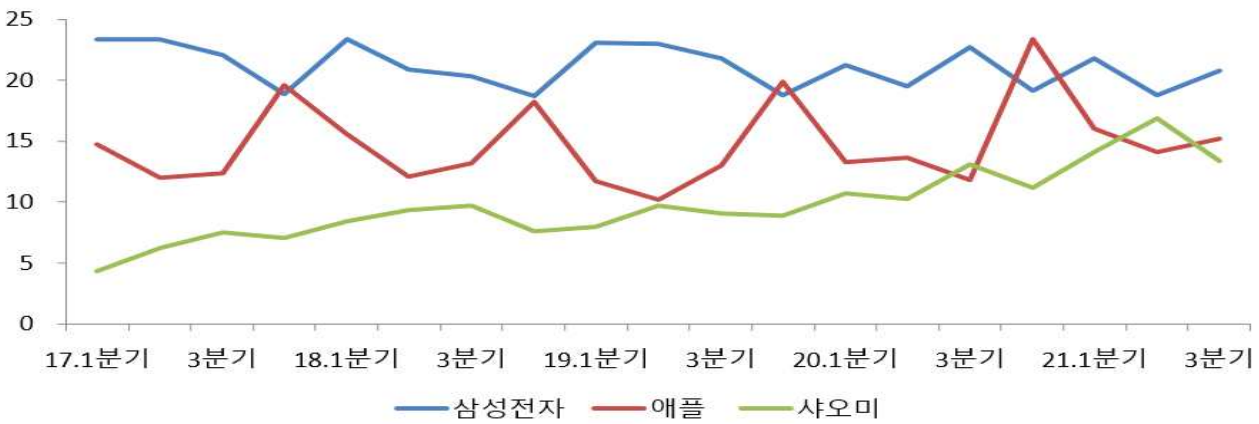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중국 수요 약화, 부품 부족 심화, Honor의 성장 등으로 3분기에 감소세로 전환

  * Honor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화웨이에서 분사된 스마트폰 회사로 3분기 중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96% 증가

  *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비보 23%, 오포 20%, Honor 15%, 샤오미 14% (카운터포인트)

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단위: %



주: 출하량 기준.
자료: IDC.

(기업)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 역성장했으나 애플의 매출은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성장

- 삼성전자 IM(IT & Mobile Communication)부문 매출은 폴더블폰 판매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부품공급 부족 등으로 휴대폰 생산에 차질을 빚어 전년동기 대비 7% 감소

- 삼성전자 IM부문의 영업이익은 폴더블폰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 영업이익률은 12% 기록

-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은 아이폰13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

- 아이폰 매출은 평균 판매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성장, 서비스(아이튠즈, 애플뮤직 등) 사업 강화로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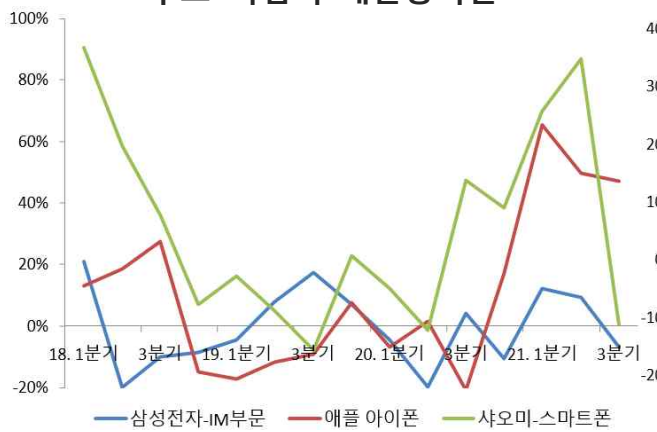
  * 3분기 애플 총 매출은 제품 78%, 서비스 22%로 구성되며 아이폰 매출비중은 47%

-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출은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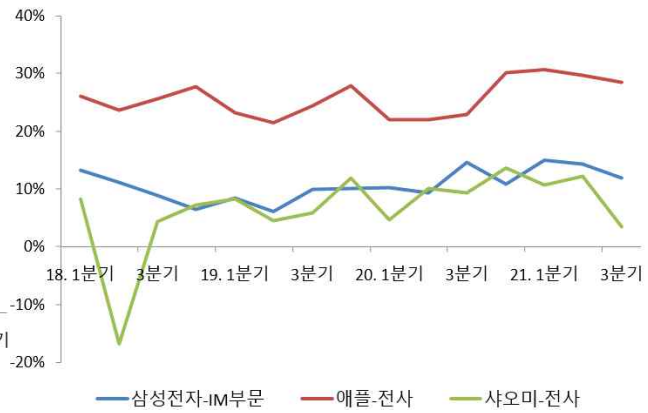
- 샤오미는 인도, 유럽 등에서 선전하면서 해외 스마트폰 매출은 총매출의 52%를 차지했으며,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6.7% 상승

  * 3분기 샤오미의 총 매출중 스마트폰 비중은 61%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수출) 3분기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33.5억 달러 기록

- 부분품 수출(비중 67%)은 고부가 부품 수출 증가, 부품 재고확보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 4분기 연속 증가세 유지

- 부분품 수출은 국내 스마트폰 기업의 완제품 해외 생산(90% 이상), 5G폰 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27% 증가
- 완제품 수출은 신모델 출시, 미국 등에서 판매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22.0% 증가했으나 부품공급 부족 등으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

-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홍콩포함), 미국 수출은 각각 98%, 25%, 증가했으나, 베트남 수출은 26% 감소

- 대중국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와 부진하던 완제품 수출 반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미국 수출도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
  *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성장 등으로 1% 이하였으나 중국내 폴더블폰 신모델 판매 호조 등으로 완제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 베트남 수출은 주요 부품 부족 등에 따른 스마트폰 생산량 목표 하향 조정, 2분기 지역 봉쇄 등에 따른 보유 재고 우선 사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

- 3분기 휴대폰 수출가격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13% 하락한 78을 기록,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47% 상승
  * 휴대폰 수출가격지수: ('20.3분기)90 →(4분기)83 →('21.1분기)81 →(2분기)77 →(3분기)78
  * 휴대폰 수출물량지수: ('20.3분기)72 →(4분기)97 →('21.1분기)78 →(2분기)83 →(3분기)106

휴대폰 수출액

단위: 억 달러



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가격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가격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